

광주시 동구 '임신지원 원스톱 서비스'

행안부 '맘편한 임신 서비스' 시범사업 지자체 선정

임산부들 보건소 방문 없이 철분제 등 물품 택배로 받아

지금까지 임산부들은 임신 진단 후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해당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 신청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동구에 사는 임산부는 구청에서 단 한번의 서비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광주시 동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임신지원 원스톱 서비스인 '맘편한 임신 서비스' 시범사업 지자체에 선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그동안 임산부들은 임신진단 후 국가와 지자체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파악했다고 하더라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직접 보건소 등을 방문해 동일한 내용의 신청서를 여러 번 작성하고 매번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컸다.

실제로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5%가 정부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응답했으며,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모름(36.8%)을 꼽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정부기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한 번에 안내받아 편리하게 신청·이용할 수 있는 '임신지원 원스톱 서비스'

를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사업 선정에 따라 동구는 오는 4월부터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임산부가 정부지원포털 '정부24' 또는 인근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전국 공통서비스인 ▲엽산제 ▲철분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맘편한 KTX(일반실 운임으로 KTX 특실 이용) ▲국민행복카드(산모의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카드) ▲위기임신 전문상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유축기 대여 ▲산모교실 ▲산전검사 ▲임산부 주차표지 발급 등 동구 지원서비스도 함께 제공받을 수 있다.

동구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임산부들이 필수적으로 복용해야 할 엽산·철분제 등의 물품을 택배로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직접 보건소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상당 부분 개선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 선정으로 우리 동구가 지향하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임산부 건강과 편의제공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을 통한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치매환자 실종방지 위한 '배회감지기' 전달

광주시 동구, 20대 시범 보급

광주시 동구가 최근 동구청 3층 접견실에서 지역내 독거 및 저소득 치매환자 실종방지를 위한 배회감지기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택 동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 선정으로 우리 동구가 지향하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임산부 건강과 편의제공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을 통한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7일 동구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인 ㈜브레인포커스가 후원한 배회감지기는 총 20대(330만원 상당)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중 중위소득 80% 이하인 독거 및 저소득 환자에게 시범적으로 보급된다.

동구는 그동안 치매환자 실종방지를 위

해 위해 부착하는 치매인식표와 지문등록, 그리고 동부경찰서와 연계해 배회감지기를 지급해왔다. 이번에 추가로 지원 받은 배회감지기는 사회적 배려계층인 치매환자들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택 동구청장은 "지역 내 치매환자 실종방지와 안전을 위해 뜻깊은 후원을 해준 사회적기업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치매환자들이 더욱 건강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남성 직장인 70% "육아휴직 사용할 의향 있다"

잡코리아 직장인 1578명 조사 실제 육아휴직 하기는 어려워

기업별 남성 육아휴직자 현황

* 남녀 직장인 1578명 대상 조사, 자료: 잡코리아&알바몬



남성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7일 잡코리아가 최근 남녀 직장인 1578명을 대상으로 '남성 육아휴직'에 대해 모바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성이 아내 대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87.3%(여성 88.7%, 남성 84.9%)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남성 직장인 중 70.5%가 "배우자 대신 육아휴직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5년 조사 당시 22.5%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인식·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실제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내기는 여전히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직장인이 육아휴직을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11.1%에 그쳤고,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이 38.4%였

다. "눈치는 보이지만 사용할 수 있다"는 남성 직장인이 50.5%였다.

사내에 육아휴직을 쓴 남성 직원이 있다고 응답한 직장인은 26.2%에 그쳤다. 이들 중 대기업 직장인이 49.7%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45.3%), 외국계 기업(32.1%), 중소기업(20.0%)이 뒤를 이었다.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이유로는 ▲남자들이 육아휴직을 안 쓰는 회사 분위기(40.6%) ▲승진·인사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17.2%) ▲돈을 벌어야 해서(15.7%) 등이 꼽혔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장애인 탑승 않은 장애인 주차표지 부착 승용차 아파트 장애인주차구역 진입하면 단속 '과태료'

앞으로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착한 승용차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채로 아파트 장애인주차구역에 진입했다가는 단속이 걸려 과태료를 물게 된다.

반대로 장애인주차구역에서 차가 나올 때는 장애인이 꼭 탑승하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및 단속기준'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복지부는 아파트 등 주거지역에서 본인용 및 보호자용 장애인 주차표지를 붙인 차에 대한 단속기준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라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자 단속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주거지역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때는 반드시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대상자인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차표지가 본인용이건 보호자용이건 관계없이 단속 대상이다. 반면 보호자용 표지를 붙인 차가 장애인이 탑승한 상태에서 주차하고 장시간 주차하는 행위는 단속 대상이 아니다.

본인용 표지가 보호자용보다 우선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있던 차가 장애인 탑승 없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도 단속할 수 없다.

/연합뉴스

보호종료아동 7800명에 월 30만원 수당

이달부터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퇴소하는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과 주거지원통합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립수당을 받는 보호종료아동은 지난해 5000명에서 올해 7800명으로 2800여명 늘어난다. 이들은 국가로부터 최대 3년간 월 30만원의 수당을 받는다.

지급대상을 '보호종료 2년 이내 아동'에서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로 변경하고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뿐만 아니라 아동일시보호시설과 아동보호치료시설에서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에게도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대상이 확대됐다.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물량도 지난해 240호에서 올해 360호로 늘어나고, 시행지역도 7개 시도에서 10개 시·도로 확대된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산재노동자 고용유지 사업주 최대 월 80만원 지원

산재재해를 당하고 직장에 복귀한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직장 복귀 지원금'이 노동자 1인당 최대 월 80만원으로 인상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 '직업재활급여 상한 금액'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직장 복귀 지원금은 장해 1~12급의 산재 노동자가 직장에 복귀할 경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2003년 도입됐다.

이번 인상 조치로 장해 1~3급 산재 노동자의 직장 복귀에 대해 사업주가 받는 지원금은 월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됐다. 4~9급 산재 노동자의 경우 45만원에서 60만원으로, 10~12급 산재 노동자는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올랐다.

지난해 지원금은 직장에 복귀한 산재 노동자 1500여 명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48억원이 지급됐다.



"묘목 키우며 치매 예방하세요"

광주시 서구 치매안심센터는 최근 지역 내 노인들에게 집에서 키울 수 있는 묘목을 지급했다. 이번 묘목 나눔은 치매 예방 프로그램의 하나로 겨울철 활동이 제한된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됐다. 어르신들은 묘목 성장과정을 사진 또는 일지로 기록하며, 기록된 사진과 일지는 오는 3월 열리는 '봄꽃과 함께 하는 장롱 속 추억사진전'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